

다중시설 화재예방책 마련 시급

다수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안전 진단·점검과 화재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51곳의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9건의 소방 설비 불량 사례(피난구유도등·차동식 열감지기·자동 확산 소화기 미설치 등)를 적발 3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설별 불량사항 적발 건수는 교회(10건), 기타 다중시설(5건), 식당(2건), 나이트클럽(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의료기관 137곳 중 10곳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5425 곳을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2017년 1월~12월 기준)에서 1051곳에서 소방 설비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도소방본부는 309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5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법 위반으로 2개 시설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적발 건수가 많은 시설은 근린생활(236건), 공장(201건), 숙박(88건), 영유아보육·아동복지·유치원·경로당(60건), 판매(50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 82곳 중 26곳에서 소방설비 불량 사례가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잡한 구조인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이용객들이 대피로를 제때 찾지 못하거나 가연성 내·외장재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소방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대형화재(사망자 5명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가 잇따랐다.

2007년 2월 여주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군 요양병원(21명 사망, 8명 부상) 화재는 불법 건축, 소화 설비 미설치, 야간 당직 인력 축소, 관리·감독 허술 등 인제(人災)의 종합판이었다.

같은 해 11월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군 펜션도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취사 지역에

광주·전남 다중시설 소방법 위반 잇따라

“방재 시설 설치 의무화·법규 강화 필요”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기준 강화·법률 개정, 소방점검 대상·횟수 확대, 소화설비 설치 기준 엄격 적용, 대피 공간 확충, 화재 예방 훈련·교육 내실화,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

수는 “다중이용시설은 용도·규모와 상관없이 방재시설 설치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내의 유독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장치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건물주와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법 테두리를 뛰어넘어 필요한 안전 설비라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며 “소방법 제에 관한 건축법과 조례들은 최소

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방재설비는 역량이 되는 선에선 최대한 갖춰야 하고, 실제 화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익히는 교육·훈련도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용도·면적에 따라 관련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설치 의무를 벗어난 곳이 많다. 구조적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소방안전 교육 확대는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는 가족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7일부터 문화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28일 오후 어린 아이와 함께 가족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순천역 주차장 무인주차정산기 불만·민원 쇄도

카드로만 사용료 지불 가능

순천역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 무인주차정산기로 교체되면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코레일 네트워크(코레일 자회사)가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다.

코레일 전남본부와 코레일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순천역 주차장 사용료 징수 시스템을 수동정산(인력)에서 무인주차정산기로 교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정산기가 카드(신용, 직불, 현금사용불가)로만 사용료 지불이 가능해, 카드가 없는 고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뒤 따라온 차량들이 길게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차비 무인정산기의 설치 위

치가 운전자의 눈높이가 아닌 코레일측이 편리(임의)한 위치에 설치해 고객들이 무인정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카드결제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1시경에 카드가 없는 한 고객이 주차장 출구를 막고 약 30분동안 헤매다가 다른 고객들의 카드로 주차비를 정산하고 빠져나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한 고객은 “앞 차량의 주차비 정산이 늦어지면서 약 30분가량 기다렸지만, 이에 따른 추가 주차비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참 난감하다”며 쓴웃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네트워크 순천사무소 관계자는 “현금결제 불가라는 안내 문구를 보지 못한 고객들의 불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사전 무인정산기를 이용하면 출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고객들의

세심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만 남겼다.

또 다른 네트워크 관계자는 “사전 무인정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출구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의 위치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무인정산기는 현금과 카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겸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터미널 주차장은 수동정산으로 고객들의 주차비 지불에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고객과 순천시민들의 편의시설인 주차장 사용료는 시간당 1600원(기본 30분당 700원, 10분당 300원)으로 인근 공공 주차장과 순천 터미널 주차(기본 30분 500원, 1시간 1000원)비 보다 60%가량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단독주택서 폭발 사고...60대 여성 화상

27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지역 단독주택 1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담장과 창문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하는 소리가 났다”는 주변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스유출 사고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함평 얼어붙은 하천서 50대 숨진 채 발견

27일 오후 2시5분께 함평군 함평을 한 교각 아래 얼어붙은 하천에서 김모(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 구조대원이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미루가 신고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남편 동창생 속여 수억 가로챈 30대 여성 구속

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남편의 고교 동창을 상대로 초고를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A(3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편의 고교 동창생 B(39)씨에게 “은행에 5년 동안 5억원을 무이자 예치한 대가로 비밀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초고를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5차례에 걸쳐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갖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빛을 갈거나 사업장 인테리어 및 운영비로 사용했고, 특히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선 함백산서 등산하던 50대 숨져

27일 오후 1시7분께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에서 산행을 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55)씨는 쓰러질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헬기를 이용해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씨는 산 정상 부근에서 하산 도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환청 들린다’ 이웃 괴롭힌 50대 남성 입건

인천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환청이 들린다고 이웃집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이 들린다고 이웃집 출입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A(54)씨를 특수수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에 인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이 들린다고 이웃 B(65)씨의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와 흉기 등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전자발찌 송신기 버리고 흥기 휘두른 40대

전자발찌 송신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뒤 유흥업소 여직원을 흥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14분께 서구 평리동 한 주택에서 A(48)씨가 전자발찌 송신기를 방치한 뒤 달아났다.

도피 중이던 A씨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유흥업소 종업원 B(31·여)씨를 흥기로 두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서울로 투입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12시40분께 관악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